

양계산업은 사양화의 조짐마저 있다

허신행박사를 찾아서……

새해를 맞이하여 월간양계는 농촌경제연구원으로 허신행박사를 찾아 보았다.

허박사는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농경연 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으로 축산정책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와 저서가 있다.

기자 : 허박사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연구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70년대까지는 축산업을 주도하여 왔는데 80년대에 와서 상대적인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계산업을 어떻

게 보시는지요?

소비자들의 기호가 고급화되고 있다

허박사 : 한마디로 말해서 양계산업은 매우 중요한 기로(歧路)에 서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없으면 사양산업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로는 첫째,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호가 고급화·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중에도 고급 유제품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햄 베이컨 등 고급 축산물로 급격히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곡물 가격의 하락은 축산물생산원가가 낮아져 소비

자에는 소득효과로 나타나 적은 돈으로도 축산물을 사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값이 싸지니 고급 축산물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식품들이 양계산업을 추월해가고 있다

둘째, 양계산업은 이미 기술혁신과 규모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온데 비하여 양돈 등 다른 축산은 최근에 기술혁신과 규모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생산비가 낮아지고 있어 양계산물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양계산물의 경쟁력은 떨어져 절대적 소비량은 증가하나 상대적 소비량은 사양화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니다.

기자 : 양계산업의 취약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허박사 : 문제점들을 알면 대책은 명확해 집니다.

고급화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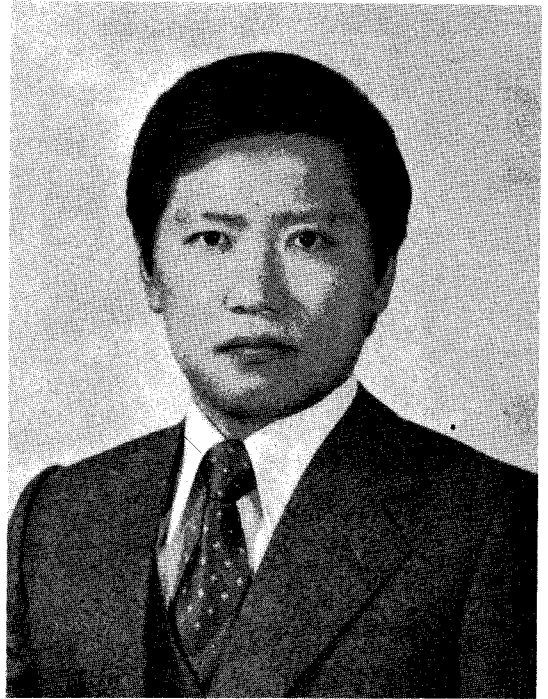
첫째, 계산물의 고급화를 급히 서둘러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발전 중기에 계산물이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읍니다.

이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KFC) 등으로 닭고기를 고급화시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양계산업의 사양화를 막아준 예를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저속하게 모방하여 열등식품화 하므로써 소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닭고기 등 재료도 나쁘고 튀김 기름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해야

다음으로 닭고기의 부분육 개발입니다. 소비자는 핵가족화 하는데 통닭을 사라고 하면 수요층이 확보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의 도계품에 대한 불신으로 생계를 선호하고 도계품의 비위생이 소비자가 닭고기를 경계하게 되어 소비의 저변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 허신행박사

근자에 구미 선진국이나 일본에서는 닭고기 너겟이 개발되어 육계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끊임없는 고급화·다양화에 대한 연구개발이 없으면 사양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계산물이 열등재로 변하고 있다

계란의 경우에도 상품화 과정(G·P센터 등)이 안되어 있어 고소득층이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기분 좋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란을 상품으로서 고급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유통의 혁신을 기해야 합니다. 생산은 그런대로 발전하였는데 유통에서 병목현상이

계열화로 새들파구 찾아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통혁신이라는 뜻은 외국의 예에서 보는 수직통합을 말합니다(계열화).

기업이나 조합이 통합주체가 되어 생산에 이르는 모든 단계나 생산 이후의 유통 소비의 단계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성은 느끼는데 잘 안되는 이유는 계열화가 투자에 대하여 수익율이 낮고 위험율이 높아 자본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양계산업의 수직통합에 기업쪽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리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업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형편은 투자가 이루어질 여건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형편이니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해 주고 세제상 혜택을 주며 위험 부담도 정부가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초기 계몽단계이니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생산자가 빨리 상표를 갖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경험과 자본을 가진 기업이 선도에 서야합니다.

정부는 양계산업의 수직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비자교육과 연구조사 사업에 주력해야

세째로, 새로운 요리개발과 올바른 홍보가 필요합니다. 생산에 연관된 단체가 연합으로 올바른 홍보활동을 강화하되 교육·강좌·연구조사에 힘을 기울여 소비자에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각 단계별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 감독의 역할을 담당해서 사양화의 조

짐을 막아야 합니다.

기자 : 그간 비교적 양계산업이 순탄하게 발전하여 왔는데 이제 전환기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가공축산물의 일부가 수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축산물의 수입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까요?

뭉쳐야 산다

허박사 : 양계산업은 많은 토지가 필요없고, 단기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부패성이 있어 신선한 상품이 요구되므로 자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급이

원칙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재고가 많이 쌓여 고민스러운 나라들이 값싸게 재고처분을 위해 수출을 하는데 이를 수입해서 수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득이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수입창구를 국가무역형태나 또는 축협 등으로 단일화해서 국내판매가격을 국내 생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목표가격을 정해 공급해야 합니다. 차액에 부과되는 부과금은 양계산업 지원에 써야 하고 목표가격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점차 낮추어 가야 합니다.

계산물 원료로한 가공산업에 투자해야

가공식품이 수입되는데 식품가공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외국 가공식품의 무방비에서 벗어나려면 이 분야

실험연구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가공식품이 소비자들의 기호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비자의 기호는 토끼 걸음으로 뛰어 가는데 양계산물은 거북이 걸음으로 쫓아 가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집요하게 가해 올텐데 생산자와 관련산업이 한데 뭉쳐서 이에 대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뭉쳐야 산다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본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것도 생산자의 단결입니다.

기자 : 생산자가 뭉쳐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업계가 뭉치는 것보다는 갈라서는 인상을 많이 받는데 최근 중소기업체와 재벌그룹과의 관계 등 전체 사회문제화되는 것이 양계산업에도 전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

는지요?

기업가 정신 강조해야 할때

허박사 : 막스웨버도 기업가 정신을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빵은 적은데 나눠먹을 사람은 많고 생존에 관한 문제라 도덕성이 결여된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계산업에 도시자본의 투입을 막고 기존 대기업은 가공해서 수출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자 :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거 허박사님께서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시절 해산결의까지 한 미네소타 한인회의 사무총장직을 맡아 기사회생시킨 그 솜씨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축산업에 활력을 넣어줄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계란속엔 영양가득 건강속엔 행복가득
- 우리모두 계란가족 영양만점 절약만점
- 계란속의 높은영양 건강주고 웃음준다